

한국형 기동헬기(KUH) 세계시장 진출논의 본격화

한국형기동헬기(KUH) 수출을 위한 공동업무 팀(JWG, Joint Working Group) 착수회의(Kick-Off Meeting)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프랑스 유로콥터사 및 양국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5일 유로콥터사(프랑스 마리앙 소재)에서 개최됐다.



이번 Kick-Off 미팅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어쇼 기간 중 체결한 "KUH 수출을 위한 합작투자회사(JVC, Joint Venture Company)의 설립

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국내 軍수요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 노력을 실질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한국형헬기개발(KHP, Korea Helicopter Program) 사업단에 파견된 지식경제부 관계자와 프랑스 병기본부(DGA)의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여 양사간 전략적 제휴 강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 필요성과 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형기동헬기(KUH) 개발은 UH-1H, 500MD 등 軍보유 노후헬기의 후속기종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12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07년 6월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다.

유로콥터사측은 기본설계 결과 향후 300대 이상의 해외수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

으며, 양사는 해외수출 모델의 마케팅과 부품조달 등을 담당할 합작투자회사(JVC)를 KAI와 유로콥터사가 각각 51% : 49% 지분 참여로 2010년까지 설립하여 2015년경 첫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7~21일까지 마케팅 전략, 종합군수지원, 조달, 입찰 전략에 대한 실무 워크숍을 사전에 개최하여 유로콥터사의 수출 노하우에 대한 소개 및 토론 활동을 전개하였고, 금년 중으로 KUH의 시장분석, 수출형상분석 및 수출가산출 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JVC 사업계획 수립, 조직·재무구조 등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유로콥터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KUH 수출을 실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 헬기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화하여 관련분야에 기술·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 소형위성발사체(KSLV-I) 상단 개발 완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백홍열)은 올 12월에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국내 최초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상단부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오는 4월 3일부터 최종 종합운용시험에 착수했다.

이번 최종 종합운용시험은 실제 발사상황을 모사하여 로켓의 발사 전 운용(PLO) 및 발사 이후 비행 시퀀스에 따른 종합운용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시험이다. 소형위성발사체(KSLV-I) 상단부의 비행 시퀀스는 페어링 분리, 2단 키톨러 점화, 자세제어, 위성 분리, 비행 종료 등의 주요 비행 이벤트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시험을 통해 고도 약 166km 지점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를 보호하고 있는 로켓 보호 덮개의 전개 여부, 고도 약 300km 지점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임무궤도에 투입하기 위한 2단 키톨러의 점화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에 개발 완료된 소형위성발사체(KSLV-I) 상



단부는 2단 키톨러,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전자탐재시스템, 제어시스템, 비행안전시스템, 노즈페어링 등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핵심 구성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단부의 핵심 구성품들을 국내 자력으로 설계, 제작, 시험/평가 및 조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직접 활용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금년 12월 발사를 위해 순조롭게 소형위성발사체(KSLV-I)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9월경에 국내 개발한 상단부 비행모델을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하고 러시아에서 개발 중인 1단 비행모델은 10월경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대한항공, 미공군 F-16 성능개선사업 성공적 수행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본부장 조항진)는 최근 미 공군 군수사령부와 태평양 지역 운영부대로부터 태평양 지역 미 공군 F-16 성능개선 사업(Falcon-STAR)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성능개선사업의 첫 번째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한 데 이어, 현재 2호기 마무리 작업 및 3호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으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은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납기 단축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월 28일 미 공군에 인도한 초도기의 경우 2007년 7월 미 공군으로부터 주주한 후 11월에 작업에 착수하여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그 기술력

을 다시 한 번 입증 받았다.

미 공군은 현재 'F-16' 전투기의 최초 설계 수명인 8,000시간 운영을 위해 기체 보강 작업(일명 Falcon-STAR)과 전자장비 성능개선사업(일명 CCIP)을 진행 중이며, 대한항공은 2013년까지 총 100여대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능개선을 통해 미 공군은 오는 2025년까지 F-16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F-16 성능개선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태평양 지역 최대의 미 육·해·공군 항공기 종합 정비 기지 역할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특히 미군 항공기 개조사업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술력은 우리 공군의 전투기



성능개량 및 수명연장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1978년 국군 및 미군 항공기 정비사업을 시작한 이래 3,500여 대의 군용기를 정비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군용기 정비기지로 성장하였으며, 미군 F-15, F-16, A-10, CH-53, HH-60, CH-47 그리고 우리군의 F-4, P-3C, CH-47, UH-60, Lynx, 500MD등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항공제품 자체 브랜드 수출길 열려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항공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항공안전협정(BASA)이 2008.2.19 오후 싱가포르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정상호)과 미국연방항공청(FAA) 청장(Mr. Robert A. Sturgell, 공식으로 대행)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항공안전에 관련된 6개 분야, 즉 항공제품의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 운항,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기 관에 대하여 정부의 인증과 평가 등에 관한 협력이 포함되었고, 이 중에서 양국 간에 동등성 및 호환성이 확인된 항공제품의 감항성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

는 이행절차(IP: Implementation Procedure)를 함께 체결하여 즉시 발효되게 되었다.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국 정부의 감항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BASA체결이 안된 국가의 제품은 인증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그 동안 우리업체는 외국업체의 하청생산 등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항공기 타이어와 블랙박스 같은 150여 장비품이 간편하게 FAA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수입요건으로 FAA의 인증을 요구하여 전세계에 수출이 확

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항공기 감항성과 관련된 법령, 인적 능력, 인증시스템 등이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동등함이 입증됨으로써 우리의 항공안전 능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항공안전분부는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이외의 유럽 등 다른 항공제품 생산국가와도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협력 범위도 항공장비품에서 항공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에 착수하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07~'12, 약 2,700억원)에 포함하여 인증용 소형항공기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1호 공식 임무종료

지난 1999년 12월 발사되어, 임무설계 수명 3년을 훨씬 넘긴 약 8년 동안 지구를 43,000여 회 돌면서 한반도 및 전 세계의 위성영상 약 44만장을 확보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의 임무가 공식 종료되었다.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金雨植)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임무수행이 정지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에 대하여 2008년 2월 20일부로 임무를 공식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백홍렬)

이 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통신이 두절된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통신 재개를 위해 금년 2월 20일까지 총 370여회 비상 위성관제를 시도하였으나 통신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위성의 전력공급 및 잔여 연료량을 등을 감안할 때 위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임무종료 요청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